

언제까지 신경써야...중국 또 스모그 기승

60개 도시 스모그 동시 발생

中 당국, 1급 긴급대응 돌입

한국 미세먼지 피해 여파

중국에 옮겨올 들어 수도권과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불청객인 스모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5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등 수도권과 산둥(山東), 산시(山西), 허난(河南), 랴오닝(遼寧) 등 7개성(省)급 지역이 지난 주말 사이 극심한 스모그로 몸살을 앓았다. 도시로 따지면 60여곳에서 한꺼번에 스모그가 발생한 것이다.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중국은 환경보호부를 중심으로 60여개 도시가 한꺼번에 1급 긴급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허베이성 스자좡(石家莊), 바오딩(保定) 등 9개 도시는 최고등급인 스모그 적색경보를 발령했고 베이징과 톈진 등 24개 도시도 최고등급 바로 아래인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다.



극심한 스모그로 지난 4일 청두 상류(雙流) 국제공항이 이날 오전 1시30분부터 10시간 가량 폐쇄돼 승객 2만 여명의 발이 묶였다. /연합뉴스

중국 환경당국은 스모그가 극심했던 허베이, 산둥 등 4개 지역에 단속반을 파견, 오염 유발 기업 10여 곳과 긴급대응 체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고 있는 지방정부를 대거 적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각지의 환경보호 조치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말 내 이어진 극심한 스모그로 공항이

폐쇄되고 고속도로가 통제되는 등 피해도 잇따랐다. 적색경보가 발효된 쓰촨성 청두(成都)의 청두 상류(雙流)국제공항은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이날 오전 1시30분부터 10시간 가량 폐쇄됐다. 신화통신은 공항이 폐쇄되면서 40여편의 항공편이 이륙하지 못했고, 승객 2만여명이 공항에 발이 묶였다고 전했다.

산둥성 청인(靑銀) 고속도로에서는 스모그로 11개 구간에서 7인승 이상 차량과 위험화물을 실은 차량의 운행이 통제됐다. 산둥지역 현지언론인 누중망(魯中網)에 따르면 이 지역의 가시거리는 200m, 심한 곳은 50m로 떨어졌다.

후난성에서도 27개 현·시의 가시거리가 500m 이하로 떨어지면서 후난성 내 고속도로 5개 구간이 일시 통제됐다.

한편 5일 들어서는 베이징과 톈진 등 수도권 스모그는 다소 완화됐지만, 허난, 산둥 등 주변 지역의 경우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 농도가 300~400㎍/㎥까지 치솟았다.

베이징은 6일부터 또다시 스모그가 찾아와 7~8일이 돼서야 대기 질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보됐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이후 전국적으로 모두 난방이 시작되면서 스모그 발생 빈도도 부쩍 찾아지고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기오염원인 석탄난방 시설 교체작업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석탄난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㉞ 전진의 명군 부견

부견(符堅, 338~385)은 5호16국의 하나인 전진(前秦)의 3대 황제로 왕망의 보좌에 힘입어 북중국을 평정했다. 동진 정권을 무너트려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 남하했다가 비수대전에서 패한 후 살해된 비운의 군주다.

그는 전진의 창업주 부견의 조카로 자는 영소다. 어려서부터 박학다재하여 제왕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부견이 죽자 2대 황제 부생(苻生)을 죽이고 정권을 탈취했다. 청호를 대진천왕으로 연호를 영흥으로 바꾸었다. 장안에서 즉위한 후 저족 세력을 누르고 한인을 포함해 다양한 인재를 발탁해 국력신장을 도모했다.

한족인 왕망을 만난 것이야말로 일생일대의 행운이었다. 산둥성 창동현 출신의 왕맹은 보기드문 인재였다. 첫 만남에서 마치 평생의 벗같은 우의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전연을 평정해야 했다. 왕맹의 건의에 따라 낙양과 형양을 차지한 후 수도 업으로 진격하는 작전을 채택했다. 결국 전연은 멸망했다. 연의 오왕인 모용수가 투항하려 하자 왕맹은 반대했다. “모용수 부자는 비유하면 용과 범 같아서 길들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일찍 제거하는 것이 낫다”고 건의했으나 부견은 그들을 받아들였다. 후일 그는 비수대전에서 패한 후 모용수 등이 등을 돌려 요양에게 살해되었다. 왕맹의 선견지명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375년 왕맹이 죽었다. 온 몸을 다해 국사에 전념했다가 병을 얻은 것이다. 죽음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상소를 올렸다. “동진이 비록 강남의 후미진 곳에 있으나 정통성을 갖고 있고 상하가 안정되고 화합한다. 신이 죽은 뒤에 원컨대 동진을 도모하지 마라. 선비쪽과 강국은 우리의 원수다. 끝까지 우

비수대전 패배...비극이 된 ‘천하 통일 꿈’

느낄 수 있었다. “유비가 공명을 만난 것 같다”는 것이 왕맹에 대한 첫인상이었다. 왕맹을 중서시랑으로 발탁해 내정개혁을 보좌토록 했다.

그는 왕맹을 중서령, 경주윤으로 승진시켰다. 왕맹은 개혁 성향의 중승, 등강 등과 협심해 장안의 질서를 회복하는데 노력했다. 태학을 정비, 학문을 장려하고 농경을 활발히 일으켰다. 수리시설의 보완, 군정의 개선 등도 착실히 이루어졌다. 370년 전연을 공격해 낙양에서 이기고 업을 공략해 멸망시키고 선비족 4만호를 장안으로 이주시켜 국력을 강화하였다. 전랑을 멸하여 감숙 지방을 장악하고 내몽골 남부까지 세력을 확대했다. 372년 승려 순도를 사켜 고구려에 불경과 불상을 보내 불교를 전파했다.

그는 민생을 깊이 걱정한 군주였다. 어느해 크게 가뭄이 들자, 음식의 가짓수를 줄이고 음악을 철폐했다. 왕후 이하 비단 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 지방 관리들에게 지시해 호도, 공손, 청렴, 정직, 문학에 정통한 인재를 천거토록 했다. 천거된 자를 살펴 적임자일 경우 천거한 사람에게 상을 내리고 적임자가 아닐 경우 죄로 다스렸다. 이에 사회기강이 바로잡혔다.

전진과 전연은 북중국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두 나라였다. 북중국을

환이 될 것이다.” 부견은 “하늘은 내가 천하를 하나로 평정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인가. 어찌 빨리 빼앗아가는가”고 한탄했다.

그는 왕맹의 유지를 어기고 대군을 동원해 383년 동진을 공격했다. “남정하여 천하를 통일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383년 8월 보병 60만명과 기병 27만명을 이끌고 장안을 출발했다. 동진군은 재상 사만의 조카인 사현과 황충이 지휘했다. 전진군의 좌중수로 천하의 결전이라는 비수대전은 동진의 승리로 끝났다. 부견의 남정은 승려 도안, 부용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태자 부선도 간헐이나 “천하의 대사를 뜻대기가 어찌 앞지르나”고 일소에 부쳤다. 장안으로 도망쳐 온 그에게 선비족 모용부의 반란이 기다리고 있었다. 장안에서 쫓겨난 후 오장산으로 도망갔다. 강족의 요양이 오장산을 포위하고 전국의 옥새를 요구했다. 그는 “감히 천자에게 강요하다니. 옥새는 이미 동진으로 보냈다. 줄 수가 없다”고 거절했다. 그는 신평현의 절에서 목졸려 죽었다. 향년 48세였다. 선명후암(先明後暗). 처음에는 밝았으나 나중에는 어리석게 됐다는 뜻이다. 그의 치세는 왕맹의 보좌로 처음에는 화려했지만 말로는 지극히 비참했다.

달리고 오토바이 타고 잠수하고...개성만점 지구촌 산타들



성탄절을 앞두고 산타클로스 분장을 소재로 한 행사가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에서 오르몬드가 병원이 자선기금 마련을 위해 연 산타 달리기 대회(왼쪽)에는 시민 2000명이 참가했고 폴란드 그단스크시에서는 산타들이 오토바이 행진을 했다. 오른쪽은 일본 도쿄 선샤인 아쿠아리움에서 잠수사가 공연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탈리아 개헌 부결...출렁이는 세계 금융

은행 줄도산·EU 탈퇴 우려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묻는 이탈리아 국민투표가 부결로 결론 나면서, 취약한 이탈리아 은행들이 줄도산에 내몰려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마테오 렌치 총리가 사퇴를 선언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조기총선거까지 과도정부가 통치하게 되면 막대한 부실채권으로 도산

위기에 몰린 이탈리아 은행에 직격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내년 상반기 조기총선에서 개헌안 반대운동의 선봉에 섰던 포퓰리즘 성향의 제1야당 오성운동과 반(反)이민·반유럽연합(EU)을 주장하는 극우 북부리그(NL)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이탈리아가 유로존을 떠나는 ‘이탈렉시트’(Italexit)가 현실화하면서 세계 경제에 더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5일 이탈리아 국민투표가 부결로 결론 나 정치권이 힘을 잃게 되면서 한창 증가와 부실채권 재조정에 나선 이탈리아 은행권은 도산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당장 가장 취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이탈리아 3위 은행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몬테 데이 파스키 데 시에나(BM-PS)는 연말까지 도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50억 유로의 유상증자를 해야 하는데, 이를 완료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탈리아 은행의 부실대출 액수는 모두 3600억 유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4배 폭증해 국내총생산(GDP)의 17%에 이른다. /연합뉴스



중개
법인

한국토지경매

☎ 1522·3396
대표

경매 골프장 감정가 39억8천만, 최저가 27억8천만 광양시 봉강면 / 9홀 / 대지 9673평, 건물 232평	경매 상가건물 감정가 12억2천만, 최저가 12억2천만 무안군 삼향읍 / 대지 126평, 건물 289평 / 남악신도시내 위치	교육 연구 시설 감정가 16억 2천만, 최저가 16억 2천만 순천시 낙안면 / 대지 3987평 건물 336평 / 1종일반주거지역 / 아곡마을 내 위치 / 수목 식재 가스충전소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7억 1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접 / 자동차차기 / 3기 6구 숙박시설 감정가 9억 4천만, 최저가 6억 6천만 북구 중흥동 / 총 8층 / 대지 91평 건물 340평 / 일반상업지역 / 코너 / 광주역 앞 위치 수익형 상가 빌딩 감정가 4억 5천만, 최저가 4억 5천만 남구 주월동 / 총 4층 / 대지 71평 건물 177평 / 4층 안접 / 1종일반주거지역 / 코너 / 10m도로접
매매 오피스텔 매매가 42억 조선대공대입구 / 10층 / 신축 / 대지 183평, 건물 600평	매매 상가건물 매매가 15억 첨단 / 3층 / 대지 198평, 건물 450평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영업중 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연립주택 부지 매매가 12억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 담 1098평 /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 주변 명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7구 / 공실없음 연립주택 및 빌라 부지 매매가 4억 3천만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 전 1513평 / 1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 / 월출산 조망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 - 6772 - 1114 김 주 성